

# ‘신형 잠수함’ 임기영, 대어 낚을까

KIA, 핵터 대신 선발 낙점

SK 에이스 켈리 상대 데뷔전

KIA 타이거즈의 ‘신형 잠수함’ 임기영이 대어를 잡을까?

5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예정이었던 KIA 타이거즈와 SK 와이번스의 시즌 2차전이 우천으로 취소됐다.

비가 오락가락하는 날씨 속에 경기 진행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 KIA 김기태 감독은 선발 고민을 했었다. 정상적으로 경기가 진행된다면 순리대로 선발진을 운영해가면 되지만, 우천 취소가 될 경우에는 선발진 운영에 대한 경우의 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우천 취소 결정전 취재진과의 자리에서 김기태 감독은 “경기가 취소될 경우 내일(6일) 선발을 그대로 임기영으로 갈지, 핵터로 갈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내일 아니면 임기영 등판이 많이 미뤄질 수 있고, 선택에 따라 장단점이 있어서 고민이다”고 언급했었다.

그리고 우천 취소가 결정된 뒤 김 감독은 임기영을 선택했다. 4연패에 빠진, 갈 길 바쁜 SK는 5일 선발로 준비했던 김주한이 아닌 에이스 켈리를 6일 선발로 예고했다.

김주한과의 ‘사이드암’ 맞대결을 준비했던 임기영은 막강한 켈리를 상대로 선발 데뷔전을 치르게 됐다. 임기영에게는 KIA 데뷔전이기도 하다. 임기영은 지난 2014년 송은범의 FA 보상 선수로 KIA로 이적했지만, 지난 2년 상무에서 군 복무를 하느라 KIA 유니폼을 입지 못했다. 아직도 KIA 팬들에게 낯선 선수다.

6일 의미 있는 경기를 치르게 된 임기영은 5일 간단히 캐치볼을 하면서 하루 밀어진 데뷔전을 준비했다.

임기영의 선택으로 KIA는 주말 한화와의 3연전에 마운드 무게를 더 두게 됐다.

SK가 연패 탈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대인 데다 켈리까지 출격하게 된 상황, 핵터와 켈리의 맞대결 대신 한화전에 확실한 카드 핵터-팻단을 투입해 주말 한화전을 잡겠다는 복안이다. 여기에 하루 밀어 선발진이 운영되면서 로테이션 상 이번 주 두 차례 출격해야 하는 양현종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11일 두산 원정에 나설 수 있게 된다.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군 공백과 선발 경험 부족의 임기영이 켈리에 밀린다. 하지만 공은 등글다. 올 시즌에 대한 임기영의 각오와 준비도 남달랐다.

임기영은 선발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다.

임기영은 “군대 가기 전에는 간절함이 부족했던 것 같다. 예전에는 특별한 생각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개막 엔트리에 들었을 때도 정말 기분이 좋았다. 예전과 비교하면 야구 욕심도 많이 생긴 것 같다. 선발 기회가 찾아왔는데 놓치지 말자는 마음이 강하다. 한화 시절에 위기 상황에서 공을 많이 던져봤다. 긴장을 하거나 하는 성격은 아니다. 좋은 모습 보여서 선발자리에서 팀에 도움이 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첸’ 상대로 데뷔전을 치르게 된 임기영이 1승 이상의 가치를 지닌 승리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지난달 24일 대전 이글스파크에서 열린 ‘2017 프로야구 시범경기’ KIA 타이거즈 대 한화 이글스의 경기에서 KIA 선발 임기영이 역투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 양현종 “컨디션 너무 좋아 제구 난조”

## 나지완 “형우 형이 왜 MVP죠?”

### 데아웃 T 특특

▲너무 좋았어요 = 너무 좋아서 제구 난조를 보였고, 너무 좋아서 힘이 났다는 양현종이다. 지난 4일 양현종은 홈개막전 선발로 나와 6.2이닝 5피안타 3사구 8탈삼진 1실점의 호투로 승리투수가 됐다. 이날 8개의 탈삼진까지 뽐내기는 했지만 야구 욕심도 많이 생긴 것 같다. 선발 기회가 찾아왔는데 놓치지 말자는 마음이 강하다. 한화 시절에 위기 상황에서 공을 많이 던져봤다. 긴장을 하거나 하는 성격은 아니다. 좋은 모습 보여서 선발자리에서 팀에 도움이 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형이 왜 MVP죠? = ‘찰떡궁합’의 최형우와 나지완이다. KIA는 개막 후 4경기

25득점으로 3승1패를 기록하고 있다. 공격야구의 중심에는 최형우와 나지완이 있다. 최형우가 결승타·선취점 등 알짜배기 타격을 하고, 나지완은 경기의 흐름을 기울이는 마지막 결정타를 날리는 양상이다. 4일 홈개막전 6-1 승리의 중심에도 두 선수가 있다. 최형우가 1회 2사 1루에서 좌익 선상을 흐르는 2루타로 선취점을 만들었다. 1-1로 맞선 6회 1사에서는 김주찬이 이어 최형우가 연속 안타로 분위기를 이었고, 나지완이 팽팽한 흐름을 깨는 2타점 2루타를 날리며 승리를 이끌었다. 두 선수 모두 우열을 가리기 힘든 활약을 했지만 이 경기의 타자 MVP는 최형우에게 돌아갔다. 수훈 선수 인터뷰를 하는 최형우를 향해 나지완은 “형이 왜 MVP죠? 그리고 수훈 선수”라고 말하며 덕아웃을 웃음바다를 만들었다. 지난 주말 3연전 좌익수로 출전했던 나지완은 최형우가 발목 부

상에서 회복되면서 자리를 바꿔 지명타자로 돌아갔다.

▲청소년 국가대표 유격수 출신입니다 = 우익수로 시즌을 출발했던 김주찬은 이범호의 햄스트링 부상 여파로 1루수 역할을 맡고 있다. “김주찬의 1루 수비를 어떻게 보시느냐?”는 질문을 받은 김기태 감독은 “주찬이가 청소년 국가대표 유격수 출신이다. (삼성에) 입단했을 때 류중일 감독을 이을 유격수 지원이라는 평가도 받았다 (웃음)”며 김주찬의 수비 재능을 강조했다. 이어 “잘하고 있다. 클러치플레이 좋다”며 1루수 김주찬에게 좋은 점수를 줬다.

▲10시간을 잤는데도 피곤해요 = 안방마님으로 역할이 막중한 한승택(23)에게는 길고 긴 하루였다. 4일 홈 개막전에 앞서 KIA는 포수 이흥구를 내리고 ‘막내 포수’ 신병수를 엔트리에 등록시켰다. 주전 포수가 된 한승택은 홈 개막전을 1회부터 9회까지 다 소화했다. 한승택은 “흥구 형이 있을 때 마음이 편한데 내가 그 자리를 하려고 보니 부담감이 있고, 정규시즌 9이닝을 하려고 보니 죽을 차가 더 많았다. 잠을 10시간 잤는데도 피곤하다”고 웃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류현진, 다저스 팀 성적 좌우할 핵심”

### 미 언론 평가

2년간의 공백을 딛고 부활을 준비 중인 류현진(30·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올해 팀 성적을 좌우할 핵심 선수라는 현지 언론의 평가가 나왔다.

미국 일간 USA투데이는 4일(한국시간)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2017시즌 개막 첫 주 파워랭킹을 발표하며 다저스를 전체 30개 구단 중 시카고 컵스, 클리블랜드 인디언스, 보스턴 레드삭스에 이어 4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는 “만약 류현진이 어깨 부상 이전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다저스는 지난해 보다 더 나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 추신수 2게임 연속 안타...재기 청신호

추신수(35·텍사스 레인저스)가 개막 이후 2경기 연속 안타를 쳐내며 재기의 청신호를 쏘았다.

추신수는 5일(한국시간)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와 2017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홈 개막 3연전 두 번째 경기에서 2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해 4타수 1안타를 기록했다.

전날 개막전 4타수 1안타에 이어 2경기 연속 안타를 쳐내 추신수는 시즌 타율을 0.250(8타수 2안타)으로 유지했다.

추신수는 0-1로 뒤진 1회말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첫 타석을 맞았다. 추신수는 볼 카운트 1볼-1스트라이크에서 클리블랜드 우완 선발 카를로스 카라스코의 커브와 슬라이더에 연거푸 헛스윙하며 삼진으로 물러났다.

/연합뉴스

기다리던 안타는 두 번째 타석에서 나왔다. 2-3으로 뒤진 3회말 1사에서 추신수는 카라스코의 유인구에 속지 않으며 풀카운트를 만든 뒤 바깥쪽 직구를 결타로 밀어쳐 깨끗한 좌전 안타를 뽑아냈다.

클리블랜드는 좌타자 추신수를 맞아 수비 시프트를 가동, 3루수를 유격수 위치까지 옮겼으나 추신수는 3루수 왼쪽을 꿰뚫으며 시프트를 무력화시켰다.

추신수는 5회말 2사에서 3루 방면으로 기습번트를 시도했으나 카라스코의 민첩한 대처에 간발의 차이로 아웃됐다.

추신수는 2-4로 점수 차가 더 벌어진 8회말 2사에서 앤드루 밀러의 2구째 몸쪽 포스트 패스트볼(약 152km)을 공략했으나 좌익수 뜬공으로 잡혔다.

## 세계1위의 그린재킷



## 15년만에 나올까

### 더스틴 존슨, 최근 3개 대회 우승...마스터스 기대감

해마다 시즌 첫 메이저 대회로 열리는 마스터스 토너먼트는 ‘명인 열전’으로 불릴 정도로 그 권위를 인정받는다.

그러나 정작 세계 랭킹 1위가 이 대회 정상에 올라 ‘그린 재킷’을 입은 것은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이 마지막이다. 2002년 세계 1위였던 타이거 우즈(미국)가 마스터스 우승을 차지한 이후 지난해까지 세계 1위 선수가 마스터스 정상에 오르지 못했다.

우즈는 2005년에도 마스터스 챔피언이 됐지만 당시 세계 1위는 비제이 싱(인도)이었다.

싱이 2005년 3월 20일부터 4월 10일까지 3주간 세계 1위를 지켰는데 그해 마스터스가 끝난 것이 4월 10일이었다. 우즈가 마스터스 우승을 차지하며 세계 1위를 탈환한 것이다.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세계 1위 선수가 마스터스 정상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평이다. 바로 더스틴 존슨(미국·사진)이 그 주인공이다.

올해 2월 처음으로 세계 1위에 오른 존슨은 최근 기세가 매섭다.

2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제네시스오픈 우승을 시작으로 월드골프챔피언십(WGC) 맥시코 챔피언십과 델 매치 플레이 등 최근 출전한 3개 대회를 휩쓸었다. 이런 존슨을 6일(한국시간)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에서 개막하는 마스터스 우승 후보로 꼽지 않은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다.

대회 개막을 앞둔 존슨은 “내가 우승 후보로 거론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최강자의 여유를 보였다.

지난해 4월부터 따져서 최근 1년 사이에 6승을 거둔 존슨은 지난해 마스터스에서는 공동 4위에 올랐다.

그는 “마지막 날 후반 9개 홀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우승 기회가 남아 있으면 좋겠다”며 “최근의 좋은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 김시우, 필 미켈슨과 마스터스 1·2R

김시우(22)가 시즌 첫 메이저 대회인 마스터스 토너먼트에서 베테랑 필 미켈슨(47·미국)과 함께 1, 2라운드를 치르게 됐다.

대회 조직위원회가 5일(한국시간) 발표한 1, 2라운드 조 편성 결과에 따르면 김시우는 미켈슨, 라파엘 카브레라 베요(스페인)와 함께 동반 라운드를 펼친다.

미켈슨은 2004년과 2006년, 2010년 등 마스터스에서 3승을 거뒀고 2005년 PGA 챔피언십, 2013년 브리티시오픈 등 메이저 대회에서 총 5차례나 우승한 선수다.

카브레라 베요는 유럽프로골프 투어에서 통산 2승을 기록한 경력이 있다.

/연합뉴스



2015년 마스터스에서는 공동 6위를 기록한 존슨은 “이 코스는 골프백 안에 있는 모든 클럽을 효율적으로 써야 할 정도로 쉽지 않지만 최근 몇 년간 마스터스 대회 출전 경험을 통해 나에게도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밝혔다.

1, 2라운드에 강풍이 예보된 상황에서 그는 “역시 바람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예보대로라면 그린에 공을 올리기도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침착하게 파를 지키는 전략도 유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 U-19 男배구팀, 18년만에 우승 보인다

### 오늘 일본과 결승

한국 19세 이하(U-19) 남자배구 대표팀이 18년 만의 아시아선수권대회 우승에 한 발짝 더 다가갔다.

박원길 경북사대부고 감독이 지휘하는 대표팀은 4일(한국시간) 미얀마 네피도에서 열린 제11회 아시아남자유스(U-19)배구선수권대회 4강전에서 이란과 폴셋트 점전 끝에 세트스코어 3-2(25-19 25-22 23-25 16-25 15-9)로 승리하고 결승에 진출했다.

이번 대회 조별예선에서 3-0으로 물러섰던 이란을 다시 만난 대표팀은 1, 2세트를 거푸 가져와 무난히 결승에 오르는 듯했다.

/연합뉴스

하지만 이란의 반격에 3, 4세트를 내주고 결국 5세트까지 끌려가서 힘겹게 승리를 쟁겼다.

대표팀은 4강에서 중국을 3-0으로 제압한 일본과 5일 대회 우승을 놓고 마지막 한판 대결을 벌인다.

한국은 아시아배구연맹(AVC)이 2년마다 개최하는 이 대회에서 1999년 제2회 대회 때 한 차례 우승했다.

이미 이번 대회 4강 진출로 오는 8월 바레인에서 열리는 2017 세계남자유스(U-19)선수권대회 출전권을 확보한 대표팀은 6전 전승으로 결승에 올라 18년 만이자 통산 두 번째 아시아 정상에 도전한다.